

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창작, 지원, 기획, 연구 등 활동 범위도 넓다.

각 단체의 설립 목표에는 사회적, 예술적 목표가 분명하고 운영의 방법도 세세하다.

우선 예술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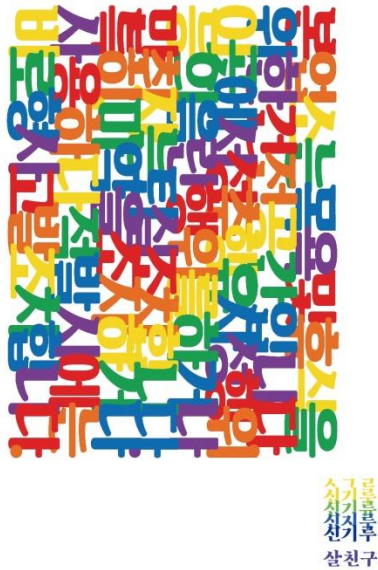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술가가 모인 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술가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같은 주제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해나간다.

그러다 집단화 되고 공연, 전시 등의 관객을 만나는 활동도 진행한다. 활동을 지속하다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단체의 규모도 함께 커져간다.

예술가 집단이 하는 일은 무엇?

우리가 예술단체를 떠올릴 때 드는 생각은 *아티스트 컬렉티브 (Artist collective : 예술가들의 공동 창작활동 등)*에 가깝다. 특정한 주제나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공동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활동은 합주와 공동작업이 필수적인 공연, 연극 등의 예술 장르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시각예술 장르의 특성상 주로 *개별적인 활동을 많고 이런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아티스트 컬렉티브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술단체의 시작과 비슷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상상할 때 이런 예술가 집단을 떠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新氣流,
信じる,



- 살친구 아티스트 컬렉티브 전시 활동 사진 -

살친구는 아티스트 컬렉티브로 지난 5월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햇곳(26도씨 운영)에서 전시와 작가의 대화가 있었다. 이들은 <청주의 퀴어>라는 공통의 주제를 표현하는 리서치과정을 선보였다.

기간 : 2020. 4.10 ~ 5. 10

전시제목 : 신기루(신기류, 신지루, 신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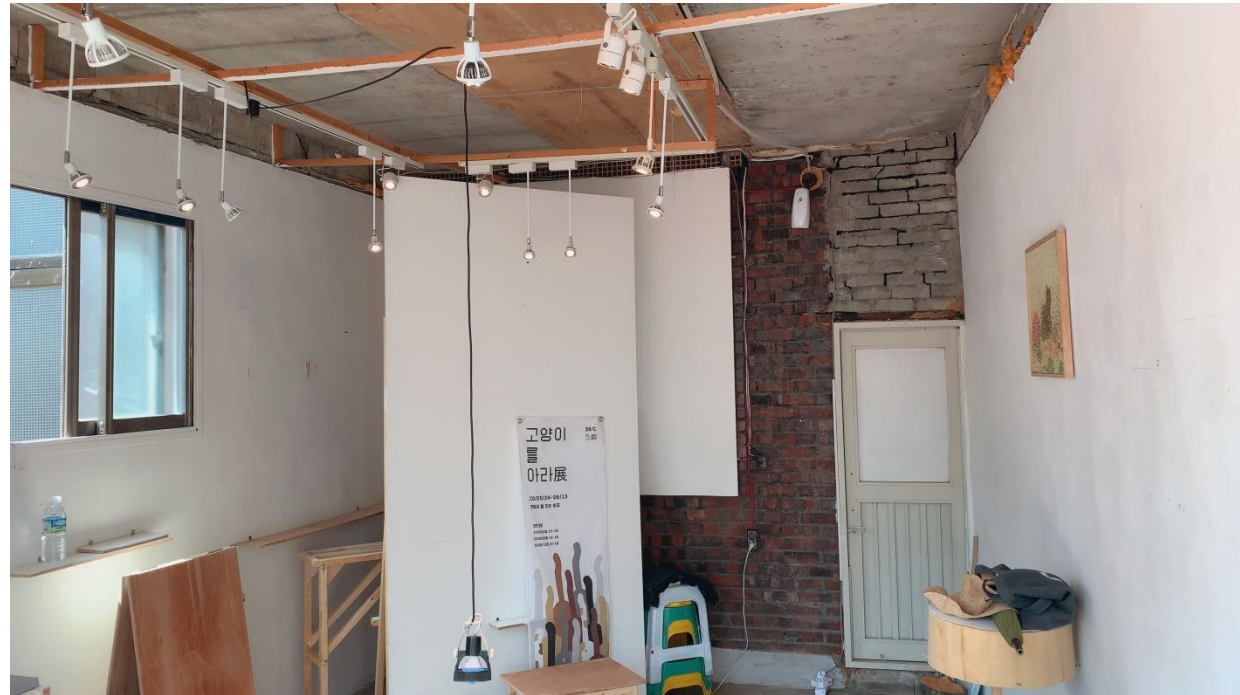
참여작가 : 살친구(양승욱, 허호)

예술단체가 된 예술가집단

예술가 집단이 단체화될 때 많은 역할 분담이 생겨난다. 기획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에서 주로 활동하던 예술가 집단(아티스트 컬렉티브)은 단체가 된다면 운영의 부분이 추가된다. 다른 회원 혹은 팀원의 참여 방식, 단체의 주요 활동과 목표 등 여러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꾸린다. 최근 들어 청년 예술인들도 기성 예술단체에 들어가기보다는 스스로 예술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대부분 예술가 집단에서 시작하거나 문화기획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하곤 한다. 또는 연구모임과 예술 기획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독립된 형태로 해보기 위해 깃발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특히 **기금을 통해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단체의 활동을 만들어 갈지**는 단체들마다 다르다.



- 햇곳 공간 -



- 햇곳 공간 -

<26도씨>의 경우, 시각예술연구모임으로 대안공간 햇곳의 운영을 병행한다. 이들은 기금에 의존을 지양하고 일부 후원금과 단체 구성원들의 자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예술단체의 독립성과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추연신대표는 기금을 통한 기획 예술연구 활동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필요 부분을 보충하는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이 가진 **생각과 활동 지향이 기금의 성격 때문에 바뀌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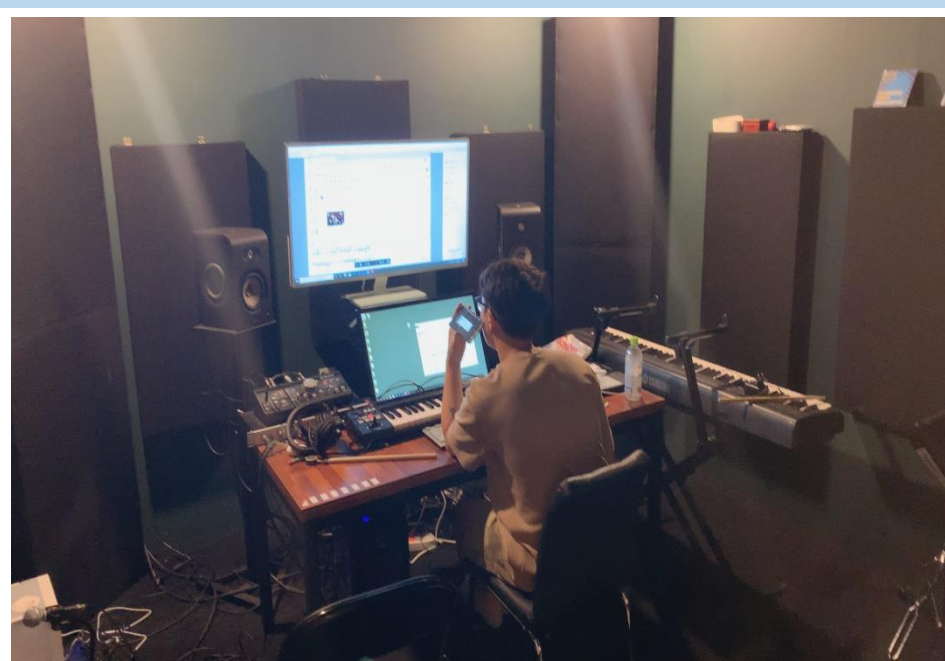
(정보: https://blog.naver.com/oublie_moon)

(2019년 충북문화재단 웹진에서 소개 참고 :

<http://www.cbarte.or.kr/webzine2019.php?menukey=103&mod=view&no=5970&page=1&cate=43&webho=201904&ho=04>)



- 문화충동 사무실 사진 -



- 문화충동 열정공장 : 작업실 및 공연장 -



또 다른 형태의 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 가는 곳도 있다. 특히 사회적, 예술적 목표와 지역 문제의식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팀으로 <문화충동>의 사례가 있다. 문화충동의 경우,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개인 단체에서 형태를 바꾸었다. 그들은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태계 대안이 되자**는 사회적 목적을 두고 뮤지션의 고용 안정, 청년활동가의 디딤돌적 역할 등 다양한 지점을 염두하고 활동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획사, 공연메이커,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불리운다.

청년 예술가들의 모임이 단체가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떠한 형태를 갖춘다. 특히 예술단체의 자생은 워낙 어려운 과제여서 **뉘 먹고 살지?에 대한 답은 언제나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술단체는 기금에 지원하여 활동을 이어나간다. 기금은 출원의 성격에 따라 조건과 과업이 다양한데 이런 참견이 단체의 목적과 맞는다면 편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많은 예술단체들이 기금의 성격에 맞추어가곤 하는데, 이것이 독이 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최근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예술 비즈니스와 예술활동에 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예술단체에 속해서가 아니라 대학원 등에서의 일화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그의 고민은 많은 예술단체 활동을 병행하는 예술가들이 갖는 것이었다. 자주 바뀌는 역할과 기금을 통한 생계는 목적을 그곳에 두었을 때 독이 된다.

대부분의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단체는 기업의 형태를 갖추기를 요구한다. 사업의 형태와 목적 등도 기업에서 쓰는 방식을 조금씩 바꾼 것이다. 물론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지라도 **예술단체의 육성이 결국 기업의 양성과 창업의 유도로 이어지는 것은 예술단체도 일종의 사업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예술단체가 만들어지고, 특정 지향점을 갖고 특정 형태를 구축하는 것은 워낙 다양할 수 있고 바람직하다. 다만 *기금의 성격을 반영하여 예술단체가 만들어지는 기형적인 모습은 따가운 시선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시선을 받는 대상이 해당 단체를 만든 주체여야 할까.* 필자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예술단체의 이름 속에 특정 사업명을 자주 발견하게 되고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를 꼭꼭 넣은 계획서를 설명회에서 읽게 되는 것일까.* 예술가가 행정을 이해하고 담당자를 배려하는 노력은 칭찬받을 일이나 그것을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기금을 통한 활동에는 언제나 성과를 요구하고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구시대적 성과지표는 전환의 시대를 맞는 오늘날 적나라하게 한계가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대면이 생활화되고 어떤 방법의 성과 지표가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작 찾은 방식이 영상 SNS를 활용한 방법이 전부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 없고, 상상력을 제한하고 살았는지 보여주는 단편일 것이다.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기획을 위해 만난 모임이 단체화되고, 어느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야기되었는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문화예술단체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과 제도에서의 시각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정체성 혼돈이 찾아온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문화예술단체는 예술활동이 주가 되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직함이다. 그리고 활동의 수혜는 지역과 사회에 있다. 우리가 길을 걷고 공원을 산책하며 아무렇지 않게 향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공재라 한다. 사실 예술은 언제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예술가의 호흡과 단체의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지불의 형태는 다양하지 못하다. 문화예술단체를 기업으로만 받아드리고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도 공원 없는 도시처럼 처량해질지도 모르겠다.